

# 경남FC 서포터즈 연합회의 차기감독 선정에 관한 입장

우리의 팀 경남FC(이하 경남)는 2005년 도민의 힘으로 탄생하였습니다.

다른 여타 프로축구팀과는 다르게 우리의 팀 경남은 3만 7천여명의 도민과 도내 기업들의 정성을 모아 만들어진 경남 도민이 주인인 구단입니다.

그동안 경남은 2006년 컵대회 3위, 2007년 K리그 4위, 2009년 FA컵 준우승 등 괄목할만한 성적을 내며 경남 도민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으며, 금전만능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노력과 단결로 비록 가난하지만 재벌들의 구단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.

현재는 K리그 15라운드가 진행된 상황에 우승 가시권에 있는 등, 도민구단의 최초 우승팀이라는 명예를 위하여 기적과 같이 대기업 구단들과 힘겹게 싸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 달간 조광래 감독의 국가대표 감독 취임, 겸직 포기 등 구단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선수단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.

심지어 오늘은 새로 취임한 구단주가 차기 감독을 내정하였으며, 금일 대표이사등과 도지사님의 면담이 예정되어있다는 언론의 발표가 있었습니다.

2년 반 동안 진행되어 온 전술과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현 선수들에게는 김귀화 코치의 감독대행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에 따라 우리 경남 FC 서포터즈 연합회는 김귀화 감독대행 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며

김귀화 감독 대행과 선수단이 어떠한 외풍에도 동요되지 않고 우리가 함

게 가야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올 시즌 종료 시 까지 차기 감독에 대한 언급을 일제히 삼가 할 것을 김두관 구단주 및 이하 구단 관계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.

또한, 가장 민주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지고 있는 우리 구단에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감독의 자리가 정해지는 비민주적인 상황을 좌시할 수 없기에 우리는 구단주, 대표이사, 구단 프런트, 감독, 코칭스텝, 선수대표, 서포터즈 대표 등이 참석하는 **공청회 개최를 요구합니다.**

감독교체의 영향은 작년 아시아 챔피언이었던 포항의 감독교체로 인한 현재의 초라한 행보에서와 같이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, 우리 선수들과 팬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 줄 수 있을 것입니다.

선거 후 경상남도의 정권변경에 동요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.

이제 우리는 각급 관련인이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는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.

우리의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은 선거 승리의 전유물이 아니며, 개인의 소유가 아닌 도민의 소유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경남FC가 만들어 가는 유스 시스템 등 미래의 목표들이 점차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고, 이러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경남FC는 도민이 주인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

**경남FC 서포터즈 연합회 회장 박성진**